

연도와 장례미사는 망자 앞 생일상 차려드린 것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노년분과 연령회는 9월9일(주일) 교육관 그리스도왕 홀에서 회원4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당 이계철(라파엘)주임 신부님을 모시고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주임신부님께서 ‘연령회는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연옥 형벌을 면하게 하는 장례미사와 연도를 바치며, 특히 망자의 장례미사는 세속의 우리들에게는 슬픈 예절이지만 그 망자의 영혼들에게는 이날이 생일과도 같은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미사를 받으시니 생일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란 말씀과 연도 제복 구입과 제복의 도안에 대해 설명하시고 회의 마침 축복까지 해주셨다.

공동체는 서로 협의와 일치 속에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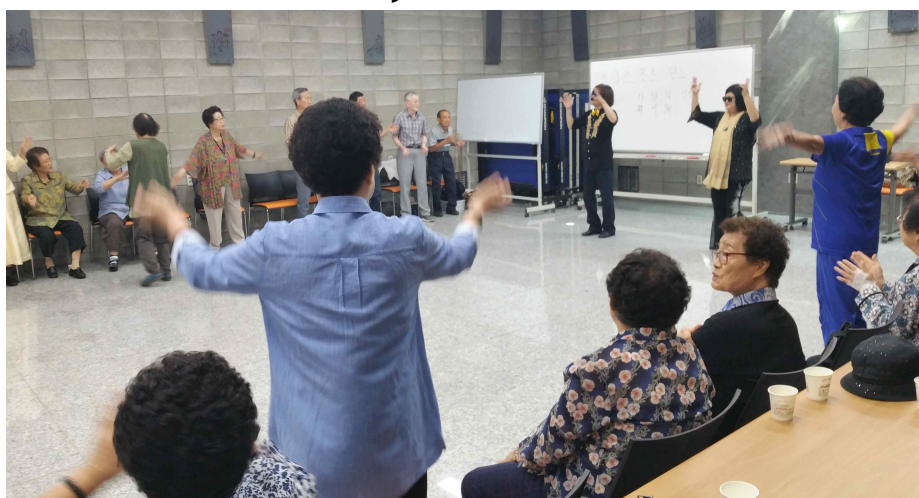
시설분과 소속 본당 사랑회는 9월9일(주일) 접견실에서 회원 7명과 주임신부님을 모시고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공흥구(안사노)회장의 시작기도와 회의 개최를 시작하여 안전으로 올라온 내용들 중에서 매월 둘째 교중 미사 이후 회의를 통하여 봉사일정 선정과 기타 안전을 토의하기로 결정하고, 이달은 9월14일 금요일 추석맞이 외부 청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참석하신 주임신부님께서 ‘본당의 모든 일에 서로 협의하여 불만스러움이 없는 봉사활동으로 일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후 마침 축복 강복을 해주셨다.



스포츠 댄스, 몸과 마음 운동으로 백세 인생을 즐기자



노년분과 소속 행복 시니어 아카데미는 9월 12일(수) 교육관 그리스도왕 홀에서 학생과 봉사자들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남식, 황성해 강사가 지도하는 스포츠 건강 댄스 수업을 마련했다.

차 강사는 ‘건강 스포츠 댄스는 백세 어르신네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춤 체조로, 온몸과 정신적 운동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에 이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다음 달 이 시간에는 멋진 사교춤을 배워 서로 즐길 수 있도록 함께 해 보겠습니다.’고 다음 프로그램 예고를 하였다.